

양봉경영에 꼭 필요한 일기예보

기상정보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

올해 아카시아꽃 생산이 흉작을 만난 것은 5월의 아카시아철 내내 때아닌 폭우로 이어진 일기불순, 그 때문이었다. 이처럼 일기가 우리 양봉인에겐 희비가 엇갈리게 한다. 아카시아 대유밀기를 맞은 우리 양봉인은 봄철동안 애써 길러온 대군(봉군)을 거느린 수장으로서 아카시아꽃 개화기 동안 정보전쟁을 치룬다고 볼 수 있다. 한 장소에 불과 일주일 남짓한 촉박한 개화기의 수밀, 이렇게 절박한 수확철을 다른 농축산 분야에선 찾아볼 수 없다. 전국을 통한 개화기 예측과 유밀상태는 물론 이에 맞춰 일기상황도 예찰해 봐야 하고 봉군을 유효적절히 때맞춰 이

동시키는 주도면밀한 정보력이 아니고선 처해진 여건에서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양봉은 아카시아밀원에 치중한 생산성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다보니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

일기상황이 맑고 흐림·강수·바람·기온·습도 등 내륙의 기상정보는 기본이고 그에다 해양의 수온 변화까지도 참고하는 양봉가도 있다고 들었다. 이제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서비스, 보통 신문·라디오·TV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일기예보는 생활인들이 늘 접하는 정보이고, 그보다 우리 양

봉인에게 절실히 고급 기상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받아 볼 수는 없을까. 「기상정보센터(전화 02-817-9550)」에는 기상청 발표 각종 기상통계자료와 일간·주간·월간·계절예보 및 기상전망등의 자료를 FAX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 지금 어느 가정에서나 퍼스널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돼 있는데, PC통신 접속을 통해 천리안 GO WIC(기상정보센터)에서 1분당 50원의 유료서비스, 하이텔 GO WEATHER(기상정보·한국경제신문제공)에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기상정보를 받을 수 있다.

앞에 두 경로를 통해 얻은 기상정보는 한번 보고들어 그냥 흘러버리는 일상적인 일기예보와 달리 활용정보로 공급받아 보관 가능한 경영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양봉인들은 일반인들 수준의 신문·방송을 통한 일간예보를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치예보로서 데이터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다. 편집자는 이러한 기상청 발표, 일간·주간·월간·계절예보 등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때 공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양봉협회보가 월간지로서 일간·주간예보(각 지방별 포함)

는 때 지난 정보가 돼버려 재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매월 말 발표되는 월간예보, 일년 4번씩 발표되는 계절별예보와 기타 기상통계자료를 고정난으로 재활용할까 한다.

지금 11월에 봉군월동 철에 사용되는 기상정보가 필요하냐고 할테지만 기상예보란 것이 예상대로 모두 적중되는 예가 드물다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늘 접하는 이러한 기상예보의 본질과 이를 받아드리는 기본 상식 좀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문에 앞으로 연중 월간예보(1~12월)와 연 4회 발표되는 계절별 기상전망, 그리고 기상통계자료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기상통계자료에서 보는 최고·최저·평균값을 지표로 삼아 매일 듣는 일기예보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기상황이 예년에 비해 상상·이상기후 여부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상청 발표 (97/10/31)

11월의 기상전망

◆ 요약

◇ 날씨 전반에는 맑은 날이 많겠고, 후반에는 주기적인 날씨 변화를 보이겠음.

◇ 기온 평년(평균 5~11°C)과 비슷하겠고 후반에는 평년보다 조금 낮겠음.

◇ 강수량 평년(37~78mm)보다 조금 적겠음.

◆ 기압계 동향

상순에는 상층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은 1회 정도 예상되고, 한때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쌀쌀하겠음.

중순에는 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1회 정도 기압골이 지나가겠고, 일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겠음.

하순에는 주기적인 날씨변화를 보이겠으며, 1~2회 정도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추위와 폭풍 현

상이 있겠고, 서해안 지방은 지형성 눈이 오겠다.

◆ 순별날씨

△ 상순 -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1회 정도 비(산간에서는 눈).

기온은 평년(평균 8~14°C)과 비슷하겠음.

강수량은 평년(16~36mm)보다 적겠음.

△ 중순 -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1회 정도 비 또는 눈.

기온은 평년(평균 4~11°C)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12~33mm)보다 조금 적겠음.

△ 하순 - 주기적으로 날씨가 변하고, 2회정도 비 또는 눈.

기온은 평년(평균 2~8°C)과 비슷하겠음.

강수량은 평년(9~23mm)과 비슷하겠음.

◆ 11월의 기후 평년값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강수량	62.9	82.0	77.1	48.4	86.9	112.4	65.4
평균기온	6.1	8.0	6.7	8.6	7.8	8.8	11.4
최고기온	11.2	13.4	12.2	13.9	13.4	13.9	15.7
최저기온	2.6	4.7	1.6	3.2	3.2	4.1	7.3
첫눈(월/일)	11/9	11/30	11/18	11/27	11/21	11/21	12/16

11월의 기후해설

11월은 초동

◆ 가을과 겨울 사이

첫얼음과 첫눈이 이 달에 있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추위라는 것도 이달부터 든다. 절기도 이달부터는 그 명칭과 실재의 기후가 얼추 맞아 들어간다.

7일의 입동은 머지않아 동장군의 발소리가 들려 올 신호가 되며, 23일의 소설은 전국이 이제 눈의 계절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낮에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온이 되는 날에도 저녁때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다. 그래서 “봄바람은 아침에 차고, 가을바람

은 저녁에 차다”는 옛말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기온의 교차도 12도 이상 될 때가 많은데 하루의 기온차가 12도 가량이면 체온 관리에 적신호가 되며 15도 가량 되면 농작물 등에 타격을 주기가 쉬우니까 이달 중순부터는 기온의 변화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 된서리의 계절

기온의 하강률이 큰 이달은 된서리가 자주 내린다. 기온이 10도에서 0도로 내리는 경우에는 10도 일 때에 갖고 있던 수증기의 45% 가량이 승화해서 서리가 된다. 이런 날의 서리는 백분율 뿐만 아니라 50% 가량 된다. 그래서 이달 하순경에는 비와 눈이 엇갈리면서 내리는 경우가 많게 된다.

97년 신개발품 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

저수량조절

실용신안원 974693의 2건
의장등록원 974537

자동사양기

◎재래식 광식사양기와 격리판에 부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경사각도에 따라 저수량을 조절 강·약군의 먹이를 군세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로얄제리·화분·종봉 생산농가에 고소득을 향상시켜줍니다.
※ 특히 본제품을 초봄·무밀기·가을월동군 번식에 활용하시면 획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매가 3,500원

각 시·도 유명 양봉원에서 구입하십시오



야생양봉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176-2. TEL (062)362-3400 · 3401

양봉을 밀바탕으로 기업화한 저희 업체가 수입개방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식품유통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봉산물을 주력상품으로 한 기공식품 유통

(주)꽃샘종합식품

Kkoch Shaem General Food Co. Ltd

대표이사 이상갑

힘들여 생산한 벌꿀을 비롯한 양봉산물, 연락주시면 수매할 태세를 갖쳤습니다.

경기 포천군 소흘읍 이가팔리 240

☎(0357)541-9921 ~ 2. 팩스 541-9933